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모의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개인주의, 사회적 관계, 상대주의적 무관심주의, 자기 진실성
예상 소요 시간	50 분 / 전체 100 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꽤 오랫동안 힘들게 길을 걸어 로빈슨은 아무렇게나 쌓인 거대한 바위 더미 아래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어마어마한 삼나무로 가려진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동굴 안을 다 살피기에는 동굴이 너무 깊어서, 그는 동굴 속으로 들어섰다가 다시 나왔다. 대신에 그는 한눈에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바위 위에 오르기로 했다. 가장 높이 솟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서자 그가 와 있는 곳은 사방이 바다이고 사람의 자취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결국 무인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시간은 그럭저럭 흘러갔지만, 로빈슨은 점점 더 자신의 하루 일과를 잘 계획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진흙탕 속에 다시 떨어져 짐승처럼 살게 될까 봐 늘 두려웠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롯이 한 명의 인간으로 남아 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나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이라곤 노동과 규칙 그리고 섬에 있는 모든 자원을 샅샅이 조사하는 일뿐이었다. (중략)

로빈슨은 한 번도 외모 따위에 신경 쓴 적이 없었고, 특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울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느 날 ‘버지니아호’에서 가져온 상자에서 거울을 꺼내 거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수염이 길었고 얼굴에 많은 주름이 생긴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변한 게 없었다. 그렇지만 점잖고 엄숙한 얼굴 표정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것은 그에게서 떠난 적이 없는 일종의 쓸쓸함 같은 것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어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미소 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눈가에 주름을 잡고 입의 양쪽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헛일이었다. 불가능했다. 그는 미소 짓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는 지금 침울한 표정 속에 굳어서 나무처럼 뻗뻗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혼자였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미소를 지을 상대가 없어서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웃어보려 했지만, 근육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계속 딱딱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슬퍼 가슴이 조이듯 아팠다. 섬에는 마실 것, 먹을 것, 잠자기 위한 집과 침대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지만 미소를 지어 보일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얼어붙어 버린 것이다.

- 미셸 투르니에, 『방드르디, 야생의 삶』 중에서

<나>

우리의 커넥톰(connectome)\*, 즉 신경세포 간의 전체 연결망은 우리의 현재 의식과 정체성을 담당한다.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관장하며,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관심을 쏟느냐는 현재 우리의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즉 커넥톰의 상태에 달려있다. 커넥톰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외부 지향적인지 또는 내면 지향적인지에 좌우된다. 또 언제든지 우리의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마다 관심의 초점은 상당히 다르다. 개인의 커넥톰도 끊임없이 변하지만 사람들 간 커넥톰 차이는 더 커지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성격 차이를 설명해준다.

우리 뇌가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타인과 거리가 멀고 고립된 자기만의 행성에 있다는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다르다는 말은 사실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각 유일무이하다는 생각은 정말 놀랍기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DNA 암호처럼 독특하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 마음은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보석이지만, 모든 방향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세상의 교차로이기도 하다. 이 바쁜 교차로로 들어오는 정보의 거대한 출처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 마치 SF 영화처럼, 개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신경 활동의 패턴이 서로의 커넥톰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개인 간 DNA 정보의 수평적 이동과는 달리, 우리의 커넥톰 간 정보의 수평적 이동은 드문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정보는 끊임없이 커넥톰 간에 흐르며 우리의 뇌는 봉인된 보물 상자라기보다는 열린 문에 가깝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에 내면의 자아라는 알맹이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이것이 나머지 세상과는 독립된 우리만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며, 우리의 존재와 유일무이한 '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지능적 사기이다. 아마도 진실은 이럴 것이다. 우리 뇌는 우리가 독립적인 개체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지하도록 진화했으며, 우리의 현대 문화가 이런 개인주의적 관점을 조장하고 과장하지만, 한마디로 이것은 잔인한 허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독립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진화했을까? 간단히 말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분명 자아의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자아관을 갖게 된 이유이다. 따라서 이렇게 유용한 관점을 완전히 버리고 싶지 않으며, 버리고 싶다고 쉽게 버릴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경우라면 자아라는 허상을 객관적으로 허물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가 자기애적인 독백에 심취해 있을 때, 다른 주변 인물에 대한 의존성으로 관점을 돌리는 것이 이로울지 모른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다.

\* 커넥톰(connectome): 뇌 속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회로도

<다>

최근 사람들의 인생관 중에서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은 너무 쉽게 상대주의적인 무관심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 각자는 모두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놓고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갑론을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식론적인 입장, 즉 이성이 확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가치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이런 가치관이 요즘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그들의 선택이며, 또 그렇게 선택된 인생은 존중받아야만 한다고들 말한다. 이런 상대주의는 사실 상호존중의 원칙에 부분적으로 뿌리 박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주의 그 자체는 개인주의의 한 분파이다. 개인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각자는 무엇이 실제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자기 나름의 생각에 근거하여 자기 삶의 형태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상에 충실할 것과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런 자기실현은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결정에 의거해 성립되어야 한다. 이런 자기실현의 내용 규정은 자기 이외의 타인은 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결코 해셔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매우 친숙한 태도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널리 퍼져 있으며 1960년대 이래로 서구 사회에서 특히 강력하게 성장한, 자기실현의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역사적으로 자기 진실성의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나 자신의

본연성·독자성에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만이 내가 명백히 제시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것을 명백히 표현해냄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본래적으로 나 자신에 속한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자기 진실성의 이상은 그 말의 정의에 따른다면 사회적 연관 관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생성되었음에 틀림없다.

- 2-1. <가>의 로빈슨이 처한 상황을 <나>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보시오. (300±30자)
- 2-2.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해 <다>에서 설명된 사회적 현상을 비판해 보시오. (600±60자)

### 3. 출제 의도

이번 문항은 인간 정체성과 인간다운 삶의 문제를 개인적 삶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성찰하도록 유도하였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화는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는 지속적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개인적 삶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문항은 무인도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의 사례를 실마리로 오늘날 팽배한 타인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하였다.

###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2	
	성취기준 3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성취기준 1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성취기준 2	
	성취기준 3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성취기준 1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성취기준 2	
	성취기준 3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방드르디, 야생의 삶	미셸 투르니에	문학과지성사	2014	15-16, 44, 58-59		0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툼 올리버	브론스테인	2022	96-98, 143, 149-154		0
불안한 현대사회	찰스 테일러	이학사	2019	27-28, 52		0

**5. 문항 해설**

[2-1] 문항은 로빈슨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 상황은 무인도에 혼자 고립되었지만 인간다운 삶을 원했던 로빈슨이 자신의 얼굴이 경직되어 가는 것에 대해 놀라며, 그것이 사회적 관계의 부재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답안은 아래 채점 기준에 설명된 내용을 포함해 유려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2-2] 문항의 요청은 <다>에서 설명된 상대주의적 무관심주의라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것이다. 자기 실현의 개인주의라는 가치관에서 파생된 이러한 태도는 자기 진실성의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은 자신의 삶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소홀하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가>와 <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며, 그런 한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취지의 답변이 아래 채점 기준에 설명된 내용을 포함해 이루어져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제시문 &lt;가&gt; 로빈슨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p> <p>① 로빈슨은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됨으로써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없는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p> <p>② 고립된 상태에서도 로빈슨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p> <p>③ 하지만 로빈슨은 미소 짓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경직된 것은 사회적 관계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p> <p>【제시문 &lt;나&gt;를 활용하여 로빈슨의 당황한 상황 설명】</p> <p>④ &lt;나&gt;에 따르면 인간은 독립된 자아라는 환상을 갖도록 진화해 왔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적 존재다.</p> <p>⑤ 로빈슨이 충격을 받은 까닭은 자신이 생존은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맺을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어 인간다움을 잃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p> <p>&lt;유의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li> <li>-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li> </ul>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글의 구성과 문장의 유려함에 아쉬움이 있는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의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④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하고 글쓰기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를 충족하였으나 ③, ④, ⑤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제시문 &lt;다&gt;의 사회적 현상 설명】</p> <p>① 오늘날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자기실현의 개인주의다.</p> <p>② 이러한 개인주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기 싫듯이 타인에게도 간섭할 수 없다는 상대주의적 무관심주의를 낳는다.</p> <p>【&lt;다&gt;의 사회적 현상 비판을 위한 논거 설정】</p> <p>③ 이러한 개인주의는 상호존중이라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위축시킴으로써 개인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만들 수 있다.</p> <p>【&lt;가&gt;, &lt;나&gt;를 활용하여 &lt;다&gt;의 사회적 현상 비판】</p> <p>④ &lt;가&gt;의 로빈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관계가 위축될 경우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p> <p>⑤ &lt;나&gt;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진화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환상이다. 인간다운 삶은 오직 끊임없이 타인과 교류하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하다.</p> <p>&lt;유의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li> <li>-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li> </ul>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글의 구성과 문장의 유려함에 아쉬움이 있는 경우	2등급
	①, ②,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③이 아쉬운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를 충족하였으나, ③,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에 아쉬움이 있고, ③, ④, ⑤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에 아쉬움이 있고 ③, ④, ⑤가 부족하며 글쓰기에 결함이 큰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2-1. <가>의 로빈슨이 처한 상황을 <나>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보시오. (300±30자)

[예시 답안]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야 했던 로빈슨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얼굴이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보여 미소를 지어 보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미소짓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고 만다. <나>에 따르면 인간은 독립된 자아라는 환상을 갖도록 진화해 왔다.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타인과 교류함으로써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다. 로빈슨이 당황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서는 자신이 원하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318자)

2-2.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해 <다>에서 설명된 사회적 현상을 비판해 보시오. (600±60자)

[예시 답안]

<다>는 오늘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기실현의 개인주의라는 가치관과 그로 인해 상대주의적 무관심주의가 팽배해지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한다. 이러한 개인주의에 따르면 나의 삶은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나의 선택과 가치관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어떤 사람도 내 삶에 간섭할 수 없듯이 나도 다른 이의 삶에 간섭할 수 없다는 상대주의적 무관심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태도가 상호존중의 윤리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켜 개인을 고립된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

<가>의 사례가 보여주듯 인간다운 삶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 따르면 인간은 독립적인 자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진화해 왔고 현대 문화 역시 그런 생각을 갖도록 조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의 삶이라는 생각에 익숙해 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자신만의 삶을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위축시키는 태도는 우리를 <가>의 로빈슨이 처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기 쉽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방적인 태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일 것이다.

(638자)